

皮膚의 分과 部에 대한 연구

-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

강정수¹ *

Study on Portions and Layers of the Skin

- based on 『Naejing(內經)』 -

Kang Jung-Soo¹ *

¹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By studying the portions and layers(分部), left and right, superior and inferior, location of yin and yang, and beginning and end of diseases of skin, which is the core point of the theory of cutaneous region(皮部論) in 『Naejing(內經)』, in the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perspective, based on opinion of historic memorial doctors, arrived to the conclusion as below.

Cutaneous region means not only the distribution of three yin and three yang(三陰三陽) of the surface, but also inside and outside, shallowness and depth, and it is the system which unites meridians, networks, and vessels. It is divided into portions and layers. The origin and beginning of diseases and the rule of favorable pattern and unfavorable pattern can be known through it. The portion of skin is not only the area that meridian vessels belongs to skin, but also the area that activation of twelve meridian vessels are expressed in the surface. The layer of skin is consisted in order of skin-tertiary collateral vessel-collateral vessel-meridian vessel-bone.

In 『Naejing』, there are two preconditions to divide three yin and three yang into yin and yang. The first is standing while looking the south, and second is the quotation “outside is side of yang(外者爲陽 內者爲陰).” According to this preconditions, yang of outside of yang brightness, lesser yang, and greater yang is the whole body, except inside of hand and foot which yin of lesser yin, pericardium, and greater yin.

Superior and inferior of the portions and the layers is designated as hand and foot, theological basis of which superior and inferior work in same diagnostic method can be found in the root and the basis(標本) and the origin and the insertion(根結).

In conclusion, cutaneous region not only manages layer of the skin, but also it is divided into layers and portions, so it has close relations between meridian vessels and collateral vessels. The in-depth study of cutaneous region and meridians should be progress, in order to practice of diagnosis and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ore.

Key words : cutaneous region(皮部), layer, meridian vessel(經脈), collateral vessel(絡脈), tertiary collateral vessel(孫絡), origin and insertion(根結).

I. 서론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

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E-mail : omdkjs@dju.kr

투고일 : 2011년7월20일 수정일 : 2011년8월9일

확정일 : 2011년8월16일

皮膚은 외부에 노출된 最淺表部分으로 생체가 외부세계에 직접 접촉하여 외계의 氣候 등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이고, 이러한 변화에 調節하고 適應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生體를 保衛하고 外邪에 저항하며¹⁾, 체내 臟腑 異常이 발현되는 인체의 가장 큰 거울이고²⁾, 毛孔·孫脈·絡脈을 통해 天人이 상통하는 연락기관이다³⁾.

피부의 면적은 1.5-2㎡이고, 체중의 약 16%를 점하고 있으며, 인체의 1/3에 해당하는 순환 혈량을 담고 있는 거대한 혈관 계통이고, 인체의 精血을 저장하는 장소다. 또한 피부에는 十二經脈, 十二經別, 十五絡脈, 十二經筋, 十二皮部, 奇經八脈, 孫絡 등이 面·線·網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외부의 피부와 내부의 장부를 연결시키고 있다. 때문에 인체의 내부에 질병이 발생하면 피부를 통해 드러나게 되므로 피부는 내장의 거대한 外象이다⁴⁾.

皮部는 十二皮部の 簡稱으로, 표면에는 삼음삼양이 분포되어 있고, 十二經脈의 생리기능이 드러나는 부위이고, 經絡之氣가 散布되는 구역이다. 經脈이 線上으로, 絡脈이 網狀으로 분포되는데 비하여 皮部는 面으로 분포하며, 그 범위는 대체로 해당경락의 분포부위에 속하고 經絡에 비하여 면적이 더 넓다⁵⁾. 때문에 皮部理論은 진단 측면에서 皮膚와 浮絡의 색채변화를 통하여 病因을 제공하고, 약물치료 측면에서 病邪가 表에 있을 때 發汗解表하거나 內病外治하는 근거가 되며, 침구치료 측면에서 半刺·毛刺⁶⁾, 皮內鍼法, 挑治法 및 敷貼法을 직접 시행하는 부위가 되는 등⁷⁾ 임상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1) 이우진, 금경수, 박경 : 素問皮部論에 대한 연구, 대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0(2), 1996. p.50.
- 2) 양력 저, 박경남, 김남일, 김정규 역 : 중의질병예측학, 서울, 법인문화사, 2001. p.225.
- 3) 송점식 찬 : 의학집요, 대전, 문경출판사, 1991. p.78.
- 4) 양력 저, 박경남, 김남일, 김정규 역 : 중의질병예측학, 서울, 법인문화사, 2001. p.225.
- 5) 송춘호, 강성길 : 十二經筋과 十二皮部に 關한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6(1), 1989. p.183.
- 6) 半刺·毛刺는 오늘날 皮膚鍼으로 발전하였다.
- 7) 전국한의과대학 교 침구경혈학교실 편저 : 침구학(상), 서울, 집문당, 1988. pp.173-174.

『素問·皮部論』은 내용에 따라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皮·脈·筋·骨에 대해서 개괄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皮의 三陰三陽의 分과 部 즉, 체표면의 三陰三陽 배속과 層에 따른 病의 轉變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으로 病이 생하는 과정과 分과 部와 서로 더붙지 않으면 大病이 된다고 하여 分과 部の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편은 皮의 分과 部の 생리·병리를 서술한 篇이라 하겠다.

그동안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주로 皮膚와 皮毛의 관점⁸⁾⁹⁾¹⁰⁾¹¹⁾¹²⁾으로 접근하였는데, 이는 體表의 생리기능에 대한 연구로 국한된 것이고, 皮·肉·筋·骨·脈 五體의 상호 연관성, 인체의 層別 구조, 邪氣 轉變경로 및 과정 등 皮部·經絡시스템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저자는 「皮部論」의 핵심 주제인 皮의 分部, 左右上下, 陰陽所在, 病之始終을 역대 의가들의 주장을 토대로 생리적, 병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II. 본론 및 고찰

1. 皮의 分部

『素問·皮部論』에 “皮에는 分과 部가 있다. … 그 생하는 병이 다른 바 그 分과 部를 나누어야 한다. … 皮라는 것은 分과 部가 있으니 더붙지 않으면 큰 病이 생한다.”¹³⁾라고 하였고, 『素問·疏五過論』에 “聖人은 병을 다스림에 반드시 天地陰陽, 四時經紀, 五臟六腑, 雌雄表裏 … 등을 알았고, … 分部에서 살펴서 病의 本始를 알았으

- 8) 구양병 : ‘肺主皮毛’에 대한 소고, 논문으로 보는 중의학 총론, 권영규 총편, 법인문화사, 서울, 2001. pp.120-122.
- 9) 이여휘, 장효평 : 肺主皮毛의 研究進展, 복건중의학원학보 15(5), 2005. pp.59-61.
- 10) 궁진갑, 송순봉 : 皮毛與大腸關係의 探討與研究, 사천중의 (26)2, 2008. pp.9-10.
- 11) 송가 : “善治者治皮毛”의 臨床眞義探討, 광명중의 24(3), 2009. pp.410-411.
- 12) 왕봉의, 조당생 : 衛氣, 진액 - 肺主皮毛의 媒介和途徑, 중의연구 22(12), 2009. pp.4-6.
- 13)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98. “皮有分部 … 其所生病各異 別其分部 … 皮者 有分部 不與而生大病也”

며, 八正九候는 진찰함에 반드시 보좌했다.”¹⁴⁾고 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分부의 逆從은 각각 條理¹⁵⁾가 있다.”¹⁶⁾고 하였다. 따라서 皮의 分部란 체표면의 三陰三陽 분포뿐만 아니라 內外淺深이 있음을 말하며, 이를 통해 病의 本始를 살필 수 있고, 逆從에도 일정한 規律를 알 수 있다.

辭典에서 部는 ‘거느린다는 뜻’이므로 통솔·지배·관할의 의미로, 分은 ‘나눈다’는 뜻으로 분할·따로따로함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皮의 分과 部の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면 ‘分’은 皮毛에서부터 絡脈·經脈·六腑·臟으로 구분되어지는 皮의 깊이라 규정할 수 있고, ‘部’는 신체의 經絡이 관할하는 皮의 영역이라 규정할 수 있다.

1) 皮의 部

皮部는 단순히 經脈이 皮膚에 소속되는 구역일 뿐만 아니라, 주로 十二經脈의 기능활동이 체표에 반영되는 부위이며 百病의 變化를 四末로 運輸하는 곳¹⁷⁾이다.

「皮部論」에서 “皮部를 알고자 하면 經脈으로써 紀를 삼는다는 것은 諸經이 모두 그러하다. … 무릇 十二經絡脈은 皮의 部다”¹⁸⁾라 하였다. 여기서 經脈은 紀가 되는 것은 經脈은 線上구조이고, 絡脈은 網狀구조이며, 皮部는 面狀구조이기 때문에 經脈이 紀(벼리)가 되어 끌면 끌리고 밀면 밀리며, 皮部에서 일어난 일들이 經脈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內經』에서는 “凡刺之理 經脈爲始”¹⁹⁾, “凡刺之道 畢於終始

明知終始 … 終始者 經脈爲紀”²⁰⁾이라고 표현하였다.

『靈樞』 「經脈」, 「本藏」, 「經水」, 「海論」, 「脈度」 등 篇에서 經脈과 絡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비교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內經』에서 나타난 經脈과 絡脈

| 經脈 | | 絡脈 |
|-------------------------------------|------|------------------------------|
| 伏行分肉之間 深而不見, 常不可見 | 見·不見 | 諸脈之浮而常見 |
| 內屬於府藏 外絡於肢節 | 連結 | 不能經大節之間 必行絕道而出入 復合於皮中 其會皆見於外 |
| ① 裏 ② 皮之府 | 部位 | ① 支而橫者爲絡 絡之別者爲孫 ② 皮之府 |
| ① 紀 ② 受血而營之 ③ 行血氣而營陰陽 濡筋骨 利關節 | 作用 | 四時反影 |
| 經有常色 | 色 | 絡無常變也 |

또한 「皮部論」에서 “陽明之陽 名曰害蜚 上下同法 視其部中有浮絡者 皆陽明之絡也 … 少陽之陽 名曰樞持 上下同法 視其部中有浮絡者 皆少陽之絡也 … 太陽之陽 名曰關樞 上下同法 視其部中有浮絡者 皆太陽之絡也 … 少陰之陰 名曰樞儒 上下同法 視其部中有浮絡者 皆少陰之絡也 … 心主之陰 名曰害肩 上下同法 視其部中有浮絡者 皆心主之絡也 … 太陰之陰 名曰關蟄 上下同法 視其部中有浮絡者 皆太陰之絡也”라고 하면서, 十二經脈의 표면에 있는 絡脈의 기능적 특징을 陽明은 ‘害蜚’, 少陽은 ‘樞持’, 太陽은 ‘關樞’, 少陰은 ‘樞儒’, 厥陰은 ‘害肩’, 太陰은 ‘關蟄’ 이라고 귀납하였다.

한편 「皮部論」에서 “그 絡의 色이 푸른 것이 많으면 痛이고, 검은 것이 많으면 痺고, 黃赤이 많으면 熱이고, 흰 것이 많으면 寒이고, 五色이

14)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p.313-314.
 15) 條理의 사전적 의미는 일의 經路 또는 가닥, 頭緒를 말한다.
 16)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23.
 17)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255. “百病變化 不可勝數 然皮有部 … 皮之部 輸於四末”
 18)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98. “欲知皮部以經脈爲紀者 諸經皆然 … 凡十二經絡脈者 皮之部也”
 19)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79.

20)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71.

모두 드러났으면 寒熱이다.”²¹⁾라고 하였는데, 診斷面에서 볼 때 皮部에는 浮絡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는 浮絡 色의 변화를 통해 病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부위가 된다.

2) 皮의 分

一身을 싸고 있는 것이 皮膚이며, 皮膚가 싸고 있는 것은 肌肉이다. 肌肉에는 經脈이 통해 있고, 肌肉 아래에는 六腑와 五臟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고, 五臟六腑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骨骼이며, 이 骨骼을 묶고 있는 것은 筋이니, 이 五臟六腑의 骨骼-筋脈-肌肉 모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皮膚이다²²⁾. 이와 같이 人身은 層別로 구성되어 있고, 經脈이 內外로 관통하고 있는 구조다. 또한 우리는 일상적으로 人身을 氣分-血分 또는 衛分-營分-氣分-血分 등으로 즉, 層으로 나누기도 한다.

『內經』에서는 人身의 部位와 層에 대한 언급이 많다. 『靈樞·官鍼』에 “병이 皮膚에 있는데 항상된 곳이 아니면 病所에 鑱鍼을 쓰고, 병이 肉과 肉사이에 있으면 病所에 員鍼을 쓰고, 병이 經絡에 있어 痲痺한 자는 鋒鍼을 쓰고, 병이 脈에 氣가 적어 補해야 하는 자는 鍤鍼을 쓰고...”²³⁾라 되어 있어 九鍼 중에서 사용 부위에 맞게 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靈樞·經水』²⁴⁾에서는 三陰三陽의 刺鍼깊이와 呼吸數가 다르다고 하였는데, 이는 經穴마다 刺鍼 깊이가 相異한 것에 대한 反證이라 하겠다.

「皮部論」에는 陽明·少陽·太陽·少陰·心主·太陰의 絡脈이 盛하면 들어가서 해당 經에서 客(의탁의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陽은 바깥을 주하고 陰은 안을 주하므로, 客이 바깥에(陽絡 포함) 있다가 거두어 들어 納하였다가 안(陰絡 포함)으로 보내지고, 안에서 나와서 더 안으로 스며든다. (外氣가) 經에 들어간다는 것은 陽部를 따라서 經에 몰대어 흘러들어가고, 그 나오는 것이 陰內를 따라서 骨로 몰대어 흘러들어간다.”²⁵⁾라고 하여 외부의 客이 皮膚에서 骨까지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로써 皮部가 皮膚-浮絡-絡脈-經脈-骨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皮者 有分部 不與而生大病也”에 대한 해석

「皮部論」 마지막에 “皮者 有分部 不與而生大病也”²⁶⁾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王은 “脈이 皮 가운데를 行하고 각각에는 部分이 있다. 脈이 邪氣를 받아 따르면 病이 생하는 것이지 皮氣로 말미암아 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新校正에서 이르기를 『甲乙經』에서는 不與를 不愈라고 하였고, 全元起本에서는 不與라고 하였다”²⁷⁾고 하였고, 馬는 “皮部가 邪를 처음 感했을 때 나누어 다스릴 수 없어서 큰 병이 이것을 따라서 생긴다.”²⁸⁾고 하였고, 張은 “不與는 不及이니 皮毛의 表氣가 微虛해서 邪가 經에 들어가 藏의 危病과 더불어음을 말한다.”²⁹⁾고 하였고, 高는 “府藏의 氣가 皮 가운데

21)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98. “其色多青則痛 多黑則痺 黃赤則熱 多白則寒 五色皆見 則寒熱也”

22) 송집식 찬 : 의학집요, 대전, 문경출판사, 1991, p.77.

23)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영주,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62. “病在皮膚無常處者 取以鑱鍼於病所 膚白勿取 病在分肉間 取以員鍼於病所 病在經絡痲痺者 取以鋒鍼 病在脈 氣少當補之者 取之鍤鍼於井榮分輸...”

24)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영주,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00. “足陽明刺深六分 留十呼 足太陽深五分 留七呼 足少陽深四分 留五呼 足太陰深三分 留四呼 足少陰深二分 留三呼 足厥陰深一分 留二呼 手之陰陽 其受氣之道近 其氣之來疾 其刺深者 皆無過二分 其留皆無過一呼”

25)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98. “陽主外 陰主內 ... 故在陽者主內 在陰者主出 以滲於內 ... 其入經也 從陽部注於經 其出者 從陰內注於骨”

26)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98. “皮者 有分部 不與而生大病也”

27) 왕빙 편주 : 신편황제내경소문,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321. “脈行皮中 各有部分 脈受邪氣 隨則病生 非由皮氣而能生也 新校正云 按甲乙經 不與作不愈 全元起本 作不與”

28) 마시 편주 : 신편황제내경소문증발미,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329. “不與而生大病者 言皮部邪初感時 不能分理 而大病從是生也”

29) 장지충 편주 : 신편소문집주, 서울, 대성문화사,

에 통하므로 皮는 각각의 分部가 있게 된다. 만약에 府藏의 氣가 皮에서 더불지 않으면 큰 병이 생긴다.”³⁰⁾고 하였다. 不與를 ‘不及’, ‘不愈’ 등으로 이해한 것은 ‘皮有分部’를 해석함에 있어 ‘分’과 ‘部’로 나누어 보지 않고, ‘分部’로 보기 때문에 ‘不與’를 다르게 주석한 것이라 추측된다.

이 문장은 동편의 첫머리에도 나오는 문장으로 써, 「피부론」에서 문답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총괄하기 위한 문장으로, 앞의 두 단락을 요결한다. 따라서 “皮者 有分部 不與而生大病也”는 “피라는 것에는 分과 部가 있고, (分과 部가) 서로 더불지(與) 않으면 큰 병이 생긴다.”로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2. 음양소제

「皮部論」에 “陽明之陽 名曰害蜚 … 少陽之陽 名曰樞持 … 太陽之陽 名曰關樞 … 少陰之陰 名曰樞儒 … 心主之陰 名曰害肩 … 太陰之陰 名曰關蠶”³¹⁾이라 하였다. 陽明·少陽·太陽의 陽과 少陰·心主·太陰의 陰에 대하여 楊³²⁾은 陽明大經은 陽이 되므로 大小絡은 陽明의 陽이 된다고 하였고, 王³³⁾은 陽은 陽絡이고, 陰은 陰絡이라고 한 이래 많은 의가³⁴⁾³⁵⁾³⁶⁾³⁷⁾들은 해당 經(脈)의 陽絡·陰絡으로 이해하였다.

『素問陰陽離合論』³⁸⁾은 三陰三陽의 이합·부위·

1994, p.413. “不與 不及也 言皮毛之表氣微虛 以至邪入於經 而與藏之危病也”
 30) 고사중 : 황제소문집해, 북경, 과학기술문헌출판사, 1982, p.385. “府藏之氣 通於皮中 故皮者各有分部 若府藏之氣 不與於皮 而生大病也”
 31)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98.
 32) 양상선 : 황제내경태소,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104. “陽明大經爲陽 故大小絡爲陽明之陽”
 33) 왕빙 편주 : 신편황제내경소문,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319. “陽 謂陽絡 陰 謂陰絡 此通言之也”
 34) 장지충 편주 : 신편소문집주,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410.
 35) 황원어 : 황원어의서십일종, 소문헌해,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90, pp.109-110.
 36) 한영현 : 黃帝內經素問探源, 북경, 중국고적출판사, 2004, pp.594-597.
 37) 김달호, 이종형 : 주해보주 황제내경소문, 서울, 의성당, 2001, pp.113-117.
 38)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

작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삼음삼양과 경락을 이해하는데 기준이 되는 篇이다. 이 篇에서 삼음삼양을 구분하는 조건으로 첫째 聖人이 南面을 바라보고 선다는 것과, 둘째 “外者爲陽 內者爲陰”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해가 하루, 일년의 움직임에 따라 햇빛이 비추는 곳의 영역의 部位와 量과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햇빛 비추는 곳은 陽, 비추지 못하는 곳은 陰이 된다는 말이다.

피부는 외부와 직접 접촉하는 인체의 가장 바깥 부위이며 햇빛의 조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陽明·少陽·太陽의 陽은 인체에서 햇빛을 직접 조사받는 手足·頭部·體幹의 外側 부위를 말하고, 少陰·心主·太陰의 陰은 手足의 內側 부위를 말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皮의 三陽은 手足 內側을 제외한 인체 全부위가 될 것이고, 皮의 三陰은 手足 內側에서만 관찰이 가능할 것이다.

絡脈의 드러나는 色이 청·적·황·백·흑으로 각각 다른 이유와 陰絡·陽絡이 經에 응함에 대해 『素問·經絡論』에서 “經은 항상된 色이 있고, 絡은 항상된 變이 없으며, 청·적·황·백·흑 오색은 그 經脈의 色이다. 陰絡의 色은 그 經에 應하고, 陽絡의 色은 변해서 항상됨이 없고, 四時를 따라 行한다.”³⁹⁾라고 하여 오색은 經脈·陰絡과 관련이 있고, 陽絡은 四時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皮部論」에서 “그 絡의 色이 푸른 것이 많으면 痛이고, 검은 것이 많으면 痺고, 황·赤이 많으면 熱이고, 흰 것이 많으면 寒이고, 五色이 모두 드러났으면 寒熱이다.”⁴⁰⁾라고 하여 絡에서의 五色변화와 病症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絡脈이 四時의 氣와 五臟氣가 만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四時와 五臟의 변화가 絡의 色으로 드러나게 된다.

四時-五臟-絡脈-四時脈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宋⁴¹⁾은 “春에는 東方의 발육하는 온화한 氣가

관부, 1985, p.29.
 39)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200. “經有常色 而絡無常變也 … 心赤 肺白 肝青 脾黃 腎黑 皆亦應其經脈之色也 陰絡之色應其經 陽絡之色變無常 隨四時而行也”
 40)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200. “其色多青則痛 多黑則痺 黃赤則熱 多白則寒 五色皆見 則寒熱也”

피부로 들어가서 肝에서 生하는 木氣와 絡脈에서 서로 만나게 되므로 春脈은 浮하면서 弦하고, 夏에는 南方의 성장하는 熱氣가 皮膚로 들어가서 心에서 生하는 火氣와 絡脈에서 서로 만나게 되므로 夏脈은 浮하면서 洪하고, 秋에는 西方의 수렴하는 清氣가 皮膚로 들어가서 肺에서 生하는 金氣와 絡脈에서 서로 만나게 되므로 秋脈은 沈하면서 濇하고, 冬에는 北方의 固藏하는 寒氣가 皮膚로 들어가서 腎에서 生하는 水氣와 絡脈에서 만나게 되므로 冬脈은 沈하면서 堅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內經』에서는 인체 부위를 중요도에 따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靈樞經筋』⁴²⁾에는 足太陽之筋→足少陽之筋→足陽明之筋…의 順으로, 『靈樞經水』⁴³⁾에는 足太陽外合於清水→足少陽外合於渭水→足陽明外合於海水 順으로, 『靈樞經脈』⁴⁴⁾에는 肺手太陰之脈→大腸手陽明之脈→胃足陽明之脈→脾足太陰之脈 順으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皮部에 대한 순서가 陽明之陽→少陽之陽→太陽之陽→少陰之陰→心主之陰→太陰之陰의 順으로 서술되어 있다. 陽明之陽부터 언급된 것은 皮部에서 살펴보는 주대상은 浮絡·孫絡·絡脈인데, 이것들이 여름·陽明과 관련이 깊고, 모세혈관과 같은 작은 血脈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顔面부위가 陽明에 포함되기 때문일 것이다. 『素問·四時刺逆從論』에서 “夏氣는 孫絡에 있고, 長夏氣는 肌肉에 있다. … 여름은 經이 차고 氣가 넘쳐서 孫絡으로 들어가 血을 받으니 皮膚가 충실해진다.”⁴⁵⁾고 한 것을 참조할 만하다.

3. 上下同法

分部の 상하동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標本·根結에서 찾을 수 있다. 標本·根結은 氣血의 운행과 분포를 기초로 하여 經絡·腧穴이 상하내외로 상호 대응관계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⁴⁶⁾, 그 중에서 根結은 經氣의 升降出入과 上下內外를 관통하는 經脈의 兩極의 相連 및 經氣의 集中과 擴散을 표현한다⁴⁷⁾. 또한 十二經脈의 根結은 經脈의 標本과 유사성이 있는데, 根과 本은 四肢末端이 되고, 結과 表는 軀幹이 된다. 標本·根結의 주요 의의는 經氣가 線狀으로 순행하면서 동시에 面狀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⁴⁸⁾.

「皮部論」의 “上下同法”에 대해서 楊⁴⁹⁾은 “陽明의 脈은 手에도 있고 足에도 있다. 또한 手陽明은 手が 아래에 있고 頭가 위에 있으며, 足陽明은 頭는 위에 있고 足은 아래에 있으니 色을 보고 鍼을 行함에 모두 法이 같다. 나머지도 이에 준거한다.”라고 하였고, 王 등⁵⁰⁾⁵¹⁾⁵²⁾은 上은 手陽明, 下는 足陽明이라 하였고, 張 등⁵³⁾⁵⁴⁾은 手足 二經이라 하였고, 馬⁵⁵⁾⁵⁶⁾는 上은 手, 下는

41) 송점식 찬 : 의학집요, 대전, 문경출판사, 1991, p.79.

42)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p.102-104.

43)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p.99-100.

44)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p.99-100.

45)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229. “是故春氣在經脈 夏氣在孫絡 長夏氣在肌肉 秋氣在皮膚 冬氣在骨髓中 … 夏者 經滿氣溢 入孫絡受血 皮膚充實”

46)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 臨床經絡腧穴學, 법인문화사, 서울, 2000, p.105.

47) 대한동의생리학회편 : 동의생리학,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3, p.162.

48)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 臨床經絡腧穴學, 법인문화사, 서울, 2000, p.107-108.

49) 양상선 : 황제내경태소,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104. “陽明之脈 有手有足 手則爲上 足則爲下 又手陽明在手爲下 在頭爲上 足陽明在頭爲上 在足爲下 診色行鍼 皆同法也 餘皆倣此”

50) 왕빙 편주 : 신편황제내경소문,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319. “陽明之陽 名曰害蜚 上謂手陽明 下謂足陽明”

51) 황원어 : 황원어의서십일종, 소문현해,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90, pp.109. “上謂手陽明 下謂足陽明”

52) 요지암 : 소문경주절해,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63, p.203. “上謂手陽明 下謂足陽明”

53) 장지충 편주 : 신편소문집주,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410. “上下同法 謂手足二經 皆同此法”

54) 장계빈 편 : 장씨유경, 서울, 성보사, 1982, pp.291-293.

55) 마시 편주 : 신편황제내경소문주증발미,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p.326-328. “上者 手也 … 下者 足也 … 上下同一法耳”

56) 고사중 : 황제소문직해, 북경, 과학기술문헌출판사, 1982, p.382. “上下 猶手足也”

눈이라 하여 여러 의가들은 上下를 手足三陰三陽(經)으로 보았다. 이는 同篇에서 “皮部를 알고자 하면 經脈으로써 紀를 삼는다는 것은 諸經이 모두 그러하다.”⁵⁷⁾라고 한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특이한 것은 본문에서 三陰을 少陰·厥陰·太陰이라고 하지 않고, 少陰·心主·太陰이라고 하였다. 心主에 대하여 역대 의가들은 手厥陰之陰⁵⁸⁾⁵⁹⁾⁶⁰⁾, 厥陰之絡⁶¹⁾, 厥陰之陰⁶²⁾으로 이해하였다. 『內經』에서는 手厥陰과 足厥陰을 엄연하게 다른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본문에서 “夫子(岐伯)가 皮의 十二部를 말했다 ….”⁶³⁾라고 한 것으로 보아 手足厥陰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心主之陰 名曰害肩”이라고 했으므로 心主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4. 病의 始終

皮膚의 목적은 正氣를 받아들이고 雜氣는 방어해서 臟腑를 보호하는 것이 主務이다⁶⁴⁾. 皮膚는 인체의 방어막과 같으므로 외부에서 邪氣가 침입하는 경우에는 皮膚에서 가장 먼저 접촉을 하게 된다. 이를 『素問·湯液醪醴論』에서는 “무릇 病이 시생한다 함은 지극히 작고 지극히 정미로와서 반드시 먼저 들어가 皮膚에 맺혀진다.”⁶⁵⁾라고 하

였고, 『素問·欬論』에서는 “皮毛는 肺와 습이다. 皮毛가 먼저 邪氣를 받으며, 邪氣는 그 습인 肺를 따른다.”⁶⁶⁾라고 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皮에는 分이 있어서 邪氣가 皮膚에 들어가면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인체 내부로 전해지게 된다. 「皮部論」에서는 邪氣 轉變과정인 十二經絡脈과 十二皮部가 서로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미묘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에 이들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皮部論」에 “十二經絡脈은 皮之府이기 때문에 百病이 始生함에 반드시 皮毛부터 먼저 하게 된다. 邪가 皮毛에 中하면 腠理가 열리고 腠理가 열리면 들어가 絡脈에 의탁하게 되고, 머물렀다가 (皮毛로 되돌아 나)가지 않으면 傳하여 經에 들어가고, 머물렀다가 (絡脈으로 되돌아 나)가지 않으면 傳하여 腑에 들어갔다 腸胃에 저장된다. 邪가 皮에 비로소 들어가면 (皮가) 솟아서 毫毛가 일어나고 腠理가 열린다. (邪가) 絡으로 들어가면 絡脈이 盛하여 色이 변하게 되고, (邪가) 經으로 들어가서 虛한 곳이 느껴지면 이에 아래로 꺼져서 筋과 骨 사이에 머물게 된다. 寒이 많으면 筋이 떨리고 骨이 아프고, 熱이 많으면 筋이 늘어지고 骨이 줄어들면서 약해지고 肉은 빛나고 오금은 깨지고 毛는 서서 敗하게 된다.”⁶⁷⁾고 하였다.

본 段은 邪가 사람을 傷하게 하는 길이 外表로부터 內·裏로 미치는데, 皮毛·腠理를 먼저 하고 絡脈을 뒤로 하며 나중에는 안으로 臟腑에 傳함을 闡述함으로써 手足三陰三陽과 十二經絡脈과의 상관성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十二經絡脈은 체표 및 장부와 연락하고 있으면서, ‘皮之府’가

於皮膚”

57)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98. “欲知皮部 以經脈爲紀者 諸經皆然”
 58) 오편 주 : 내경소문오주, 산동과학기술출판사, 제남, 1984. p.217. “心主 手厥陰也”
 59) 고사중 저, 어친성 안, 황제소문직해, 과학기술문헌출판사, 북경, 1982, p.383. “心主 手厥陰心主包絡也”
 60) 장개빈 편 : 장씨유경, 서울, 성보출판사, 1982. p.293. “心主之陰 手厥陰之陰也”
 61) 장지충 편주 : 신편소문집주,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411. “陰 謂厥陰之絡也 兩陰交盡 故曰厥陰”
 62) 마시 편주 : 신편황제내경소문주증발미,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328. “厥陰之陰之義[又心主之陰 當是厥陰之陰]”
 63)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98. “夫子言皮之十二部”
 64) 송점식 찬 : 의학집요, 대전, 문경출판사, 1991. p.79.
 65)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49. “夫病之始生也 極微極精 必先入結

66)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42. “皮毛者 肺之合也 皮毛先受邪氣 邪氣以從其合也”
 67)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98. “凡十二經絡脈者 皮之府也 是故百病之始生也 必先於皮毛 邪中之 則腠理開 開則入客於絡脈 留而不去 傳入於經 留而不去 傳入於府 虞於腸胃 邪之始入於皮也 泝然起毫毛 開腠理 其入於絡也 則絡脈盛色變 其入客於經也 則感虛乃陷下 其留於筋骨之間 寒多則筋攣骨痛 熱多則筋弛骨消 肉糜爛破 毛直而敗”

되어 내부의 사정을 밖으로 드러내고, 百病이 始生하는 곳이 된다. 또한 본문 내용이 『素問調經論』⁶⁸⁾, 『素問繆刺論』⁶⁹⁾의 내용과 유사한데, 이를 통해 『內經』에서의 邪氣 轉變에 대한 大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同篇에서 皮의 十二部가 病이 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皮라는 것은 脈의 府이다. 邪가 皮에 의탁하면 腠理가 열리고, 腠理가 열리면 邪가 들어가 絡脈에 의탁하고, 絡脈이 가득차면 經脈에 물대어 흐르게 되고, 經脈이 차면 들어가 府藏에서 들어가서 집을 짓게 된다. 그러므로 피라는 것은 분과 부가 있으니 서로 더불지 않으면 큰 병이 생긴다.”⁷⁰⁾라고 하였다.

十二皮部에서 병이 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병의 시생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으나, “皮者 脈之府”라고 하여 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때문에 浮絡·絡脈을 통하여 내부 病變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 手太陰肺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太陰之陰-太陰之(浮)絡-孫絡-絡脈-手太陰肺經·肺手太陰之脈-大腸·胃-肺의 관계가 형성된다. 만일 表部에 있는 太陰之陰·孫絡·絡脈·手太陰肺經·肺手太陰之脈 등에 병이 발생하면 내부인 大腸·肺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大腸·肺에 병이 발생하면 太陰之陰·孫絡·絡脈·手太陰肺經·肺手太陰之脈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靈樞經絡論』⁷¹⁾에 經의 색이 한결같은 것은 心赤·肺白·肝青·脾黃·腎黑이

經脈의 색에 應했기 때문이라 하여 經脈이 五臟 상태의 반영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分部가 서로 더불어야 하는 病이 생기지 않는 이유다.

한편 본문에서 邪가 皮에 皮毛로 들어오는 방식이 中, 入, 客으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中’은 邪가 人身의 상황에 관계없이 直中할 것이고, ‘入’은 外氣를 따라 들어올 것이고, ‘客’은 人身의 상황 여하에 따라 손님처럼 여기저기 의탁하면서 들어올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十二經絡脈에서는 轉入할 때는 脈과 관련성이 별로 없고, 十二皮部가 병이 될 때는 脈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十二經絡脈 十二皮部の 邪氣 전변과정

| | 邪가 들어가는 방식 | 轉變 과정 |
|-------|------------|------------------|
| 十二經絡脈 | 先於皮毛 邪中之 | 皮毛→腠理→絡脈→經→府→腸胃 |
| | 邪之始入於皮 | 皮→腠理→絡→絡脈→經→筋骨之間 |
| 十二皮部 | 邪客於皮 | 皮→腠理→絡脈→經脈→府藏 |

III. 결론

「皮部論」의 핵심 주제인 皮의 分部, 左右上下, 陰陽所在, 病之始終을 역대 의가들의 주장을 토대로 생리적, 병리적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皮部는 체표면의 三陰三陽 분포뿐만 아니라 內外淺深을 말하며, 經·絡·脈을 융합하는 시스템이다. 皮部는 部와 分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을 통해서 병의 本始를 살필 수 있으며, 逆從의 규율을 파악할 수 있다. 皮의 部는 經脈이 皮부에 소속되는 구역일 뿐만 아니라, 十二經脈의 기능활동이 체표에 반영되는 부위이고, 皮의 分은 皮膚-孫絡-絡脈-經脈-骨 順으로 구성되어 있다.

2. 「皮部論」의 “皮者 有分部 不與而生大病也”

68)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218. “風雨之傷人也 先客於皮膚 傳入於孫脈 孫脈滿則傳入於絡脈 絡脈滿則輸於大經脈”
 69)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224. “夫邪之客於形也 必先舍於皮毛 留而不去 入舍於孫脈 留而不去 入舍於絡脈 留而不去 入舍於經脈 內連五藏 散於腸胃 陰陽俱感 五藏乃傷 此邪之從皮毛而入 極於五藏之次也”
 70)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198. “帝曰 夫子言皮之十二部 其生病皆何如 岐伯曰 皮者 脈之部也 邪客於皮 則腠理開 開則邪入客於絡脈 絡脈滿則注於經脈 經脈滿則入舍於府藏也 故皮者 有分部 不與而生大病也”
 71)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200. “黃帝問曰 夫絡脈之見也 其五色各異黃赤白黑不同 其故何也 岐伯對曰 經有常色 而絡無常變也 帝曰 經之常色何如 岐伯曰 心赤 肺白 肝青 脾黃 腎黑 皆亦應其經脈之色也 故皮者 有分部 不與而生大病也”

는 皮라는 것에는 分과 部가 있고, 分과 部가 서로 더불지 않으면 큰 병이 생긴다 라고 해석함이 옳다.

3. 『素問陰陽離合論』의 성인이 南面을 바라보고 선다는 것과, “外者爲陽 內者爲陰”의 조건에 의하면 陽明·少陽·太陽의 陽은 手足 內側을 제외한 인체 全 부위가 되고, 少陰·心主·太陰의 陰은 手足 內側이 된다.

4. 分部의 上下는 手足을 지칭하고, 上下同法의 이론적 근거는 標本·根結에서 찾을 수 있다. 標本·根結의 의의는 經氣가 線狀으로 순행하면서 동시에 面狀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5. 「皮部論」에서 十二經絡脈과 十二皮部の 邪氣 轉變과정이 서로 비슷해 보이기 는 하나 미묘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十二皮部는 ‘皮者 脈之府’라고 하여 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浮絡·絡脈·經脈 등 脈을 통하여 내부 病變상태를 외부로 드러낸다.

皮部는 체표에 있어서 외부의 皮層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分과 部로 나누어지져서 經脈·絡脈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皮부와 經絡과의 심도있는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診斷·鍼灸에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이우진, 금경수, 박경 : 素問·皮部論에 대한 연구, 대한동의생리병리학회지 10(2), 1996. p.50.
2. 양력 저, 박경남, 김남일, 김정규 역 : 중의 질병예측학, 서울, 법인문화사, 2001. p.225.
3. 송점식 찬 : 의학집요, 대전, 문경출판사, 1991. pp.77-79.
4. 송춘호, 강성길 : 十二經筋과 十二皮部에 관한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6(1), 1989.

p.183.

5. 전국한외과대학교 침구·경혈학교실 편저 : 침구학(상), 서울, 집문당, 1988. pp.173-174.
6. 구양병 : ‘肺主皮毛’에 대한 소고, 논문으로 보는 중의학 총론, 권영규 총편, 법인문화사, 서울, 2001. pp.120-122.
7. 이어휘, 장효평 : 肺主皮毛의 研究進展, 복건 중의학원학보 15(5), 2005. pp.59-61.
8. 궁진갑, 송순봉 : 皮毛與大腸關係의 探討與研究, 사천중의 (26)2, 2008. pp.9-10.
9. 송가 : “善治者治皮毛”의 臨床眞義探討, 광명중의 24(3), 2009. pp.410-411.
10. 왕봉의, 조당생 : 衛氣, 진액 - 肺主皮毛의 媒介和途徑, 중의연구 22(12), 2009. pp.4-6.
11.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23, 29, 49, 142, 198, 200, 218, 224, 229. pp.313-314.
12.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62, 71, 79, 255. pp, 99-100, 102-104.
13. 왕빙 편주 : 신편황제내경소문,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319, 321.
14. 마시 편주 : 신편황제내경소문주증발미,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p.326-329.
15. 장지충 편주 : 신편소문집주,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410, 411, 413.
16. 고사중 : 황제소문직해, 북경, 과학기술문헌출판사, 1982. p.382, 383, 385.
17. 양상선 : 황제내경태소, 서울, 대성문화사, 1986. p.104, 198.
18. 황원어 : 황원어의서십일종, 소문현해,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90. p.104. pp.109-110.
19. 한영현 : 黃帝內經素問探源, 북경, 중국고적출판사, 2004. pp.594-597.
20. 김달호, 이중형 : 주해보주 황제내경소문, 서울, 의성당, 2001. pp.113-117.

21.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 臨床經絡腧穴學, 법인문화사, 서울, 2000. p.105, pp.107-108.
22. 대한동의생리학회편 : 동의생리학,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162.
23. 요지암 : 소문경주절해,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63. p.203.
24. 장개빈 : 장씨유경, 서울, 정보사, 1982. pp.219-293.
25. 오곤 주 : 內經素問吳注, 산동과학기술출판사, 제남, 1984. p.217.